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6주일
제34권 34호(가해) 2014.7.20

[묵상]



파푸아뉴기니 울림간 본당에서 활동하고있는 한국외방선교회 신부와 현지신자들

선교와 선교사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고,
바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도 댓가도 바라지 않고,
은전히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심을 통해
당신에게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신이고 선교사의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선교사들,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로 선교의 모범이며 전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에 초대되었음을 잊지 말고,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한국외방선교회 김용재 안드레아 신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사독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정인식 베드로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혜옥 안나, 박무성, 주영석 베드로, 송근섭 발렌티노, 전시웅 요한, 김인숙 마리아, 김덕영 & 김영은, 윤명순, 최성덕 베드로 & 이순열 마리아 (생)엠크리스 벨라도, 조 아베라인, 박정래, 이태옥 아가다,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정은경 그레이스 & 정진환 알베르토 & 정진세 사이몬, 이인성 모니카 & 안드레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 정종미 클라라 & 이명순 크리스티나 & 채승희 에스터, 박홍룡 요셉, 이철우 야고보, 홍석인 체칠리아,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2,13.16-19

화답송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26-2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3,24-43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186	246
봉헌	목마른 사슴	259	269
성체	352	296	299
파견	찬양하세	234	201

성령과 쇄신

올바른 성령 이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오늘날에도 성령의 쇄신 은총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각자 받은 은혜를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활용하고 봉사하는 데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공동체에 충고하였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1코린 10,23-24).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겸허하게 소명을 받아들이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들보게 하시는 하느님께’(1코린 12,25 참조)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1코린 12,31)라고 권고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성령쇄신운동’은 많은 신자들에게 회개와 쇄신의 은혜를 주었고,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선교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반면에 부작용과 피해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운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총에 대한 바른 식별 없이 개인의 체험이나 치유, 신령한 언어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거나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파벌과 분열도 생겨났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없지 않았으며, 바오로 사도는 바른 식별과 판단의 계기로 삼아서 건전한 신앙, 건설적 공동체 생활로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1코린 11,18-19).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성령쇄신운동’은 바른 식별과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신앙교리위원회에 위촉하여 바르고 건전한 ‘성령쇄신운동’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게 하였다. 이 소책자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식별력을 키우고, 바르고 건전한 쇄신 운동에 일조(一助)하여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계속>

한국천주교주교회(CBCK)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올바른 성령 이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밀밭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주인과 종들이 봅니다. 그러자 종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마태 13,28) 하고 주인께 문제 해결을 건의합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이 최상의 해결책 같습니다.

악(惡)이 보이기에 뽑아 버리고 싶은, 아니 뽑아야 할 것 같은 사명감에 불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악에 관하여, 혹은 타인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매일 이야깃거리가 풍성합니다.

그 사이에 밀밭이 망가지고 옆에 있는 멀쩡한 밀알들이 흠뻑러져도 잘 모릅니다. 어느 때는 그냥 악을 처단하는 용감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지적하는 말로 출근길 남편의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온종일 집안일로 고생한 부인의 마음을 한마디의 불편한 말로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서로 지적하느라 전체 들쭉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의를 실천하는 과수꾼인 양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밀밭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함을 명분으로 흠 없는 공동체, 흠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심판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나 무결점(無缺點)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의 대가는 무결실(無結實)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밀밭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밀 수확 때의 풍성함(겨자씨와 누룩의 경우에서도)을 기다려 주고, 견디어 주십니다. 결실은 견디는 자의 몫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사회를 유

지하는 것 등과 같이 살기 위해서 견뎌 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결실의 시간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견디며 사는 것도 큰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 때까지”(마태 13,30)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건강, 구원, 재산, 자식, 복 등)의 시기는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내 마음과 내 삶에 심어 주신 좋은 것(밀)을 발 견하고, 보호하고, 감사하고, 키우는 것이 내가해야 할 몫입니다.

아직은 결점투성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소중한 아름다움이 하느님의 진노조차 참고 견디게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선함과 아름다움은 비록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풍성한 결실을 위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해도 소중한 것들이 속에 자라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강귀석 신부/명일동성당 주임

오늘도 계획중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도 남들 따라 한 번쯤 해본 계획이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세웠던 생활계획표, 해마다 세운 신년계획, 날마다 때마다 내일부터 하는 다이어트. 절실해서라기보다는 안하면 안 될 거 같아 하는 계획들이라 실천한 적 없지만 포기한 적 또한 없습니다.

30년째 금연계획을 세우는 이도 있다더군요.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치겠습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 7월 18일 (금요일) 주일학교 찬양의 밤(Praise Night)
 행사가 본당 학생들과 학부모님, 타성당 교우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 한국외방선교회 감사미사 봉헌 및 후원회원의 밤
 - 감사미사 : 19일 토요일특전미사,
오늘주일(20일) 아침/낮미사
 - 미사집전 : 한국외방선교회 김용재 안드레아 총장신부님
 - 후원의 밤 : 오늘주일(20일) 오후 5시 친교장
 - 문의 : 백삼위본당 후원회장 이상철 크리스토퍼 ☎(310)818-6903

- ◆ 요셉회 7월 모임
 - 일시: 오늘주일(20일) 11시 미사후
 - 장소: 강당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 780-2789

- ◆ 본당 홈페이지(<http://www.103skcc.org/>)에 서식/양식 게시판 올림
 - 신자분들의 많은 방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직접 사무실에 오지 않으셔도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광장" 에서 서식/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문의 : 103skcc@gmail.com

- ◆ 백삼위 탁구 동호회 회원모집
 - 대상 : 본당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1시
 - 장소: 강당 및 유아실 * 회비 : \$ 60 / 1년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동호회회장 ☎(310)971-7043

- ◆ 2014년 제27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 주제 :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
 - 일시 : 8월2일(토), 8월3일(주일),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 강사 : 반영역 라파엘 신부(청주교구 감곡매곡성모순례자성당),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텍사스 엘파소 성김대건한인성당),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소장)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차편이 필요하신분은 본당 성령기도회장(장혜원 아네스 ☎ 310-780-0369)에게 7월 20까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 당일 도시락과 음료수는 본인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 ◆ 여름방학중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8월23일까지(8주간) 대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문의 :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310)782-1025

- ◆ 남가주 여성 제 37차 꾸르실료 교육...본당에서 4명 참가
 - 수강생 :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종미 클라라
봉사자 : 이명순 크리스티나, 채승희 에스터
 - 일정 : 7월 24일(목) ~27일 (주일)
 - 장소 : 포모나 Carsillo house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딩 본당간사 ☎(310)594-9472

- ◆ 남가주 여성 영어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8월 28일(목) ~31일 (주일)
 - 장소 : 포모나 Carsillo house
 - 신청마감 : 8월 11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c@gmail.com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 20 일(주일): 토런스 서2반(웰빙 우거지국 \$3)
 - 7월 27일(주일) : 토런스 남3반(콩나물 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대우	김병학					
	김옥찬	김원호	김정선	김종훈	김효진	남명자					
	박광자	박선희	박현주	배기엽	소순명	송재훈					
	신경훈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유희연	윤선희					
	이상석	이영희	이우성	이인석	이일길	장영우					
	전동훈	전정일	전정자	정남형	정동호	정열모					
	정혜영	정훈모	지경수	최득순	최상만	한창주					
	황지영	한길선레		합계 : \$ 5,545							
주일미사 헌금 : \$2,785						주보광고후원 : \$1,000					
합계 : \$3,335											
감사헌금 : \$50(박이레네)						한남체인 도네이션: \$280					

공지사항

◆ 본당 배론 청년회 신입회원 모집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즐겁고 보람찬 성당활동을 같이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사전례와 본당 행사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부터 누구나 환영
- 문의 : 이범주 다니엘 (310)988-8785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집합시간 : 1:00 pm 파킹랏(1:30 pm정각출발)
- 준비물 : 슬리퍼백, 세면도구, 재킷, 행사티셔츠, 주일헌금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백삼위한국학교 교사 모집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중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성당 2층 교실과 아래층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였습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교우 모든분들의 관심속에 깨끗하고 쾌적한 성당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 + 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특강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일시 : 7월27일(주일) 오후 1시~4시
- 강사 : 이인국 바오로(서강대교수, 생명윤리학박사)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주관 : KCLC(미서부지역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양 요안나 ☎(909)518-4376
- 장소 : Prince of Peace Abby
- 문의:하세실리아(323)578-2230, 양요안나 (909)518-4376

◆ 성 아그네스 성당 :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강의안내

- 주제 :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본 예수생애2"
- 강사 : 송봉호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 관구)
- 장소 : 성 아그네스회관
- 일시 : 8월 22일(금), 23일(토)24(주일)
- 수강료 : \$ 50 (\$20/1일)
- ☎(323)731-4433 (사무실) (323)896-7525 (김크리스티나)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배태임 안나 781-9199 7/12(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9(토) 12:30p 토런스파크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1(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7/12(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7/13(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최옥희 테레사 508-2912	최옥희 테레사 7/19(토) 오후 7시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정아 리디아 850-2822 7/13(주일) 오후 5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7/20(주일) 오전9시 텔튼 파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7/12(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7/12(토) 오전 11시 팍 야유회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7/11(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7/12(토) 오전 10시 샌버나디노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안네스 617-3568 7/19(토) 오전 라이언 파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사목지침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2014. 3.)에서 승인된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공동사목방안'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주일미사 참례 의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제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5) 본당 주임신부는 현 지침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 및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고해성사 의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제90조 2항은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전례 상식>

죽은 이를 위해서는 미사 예물만 바쳐도 되나요?

☞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영성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바치는 제사에서는 단순히 미사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령 미사를 드릴 때 미사의 본의미를 생각하여 합당한 지향과 마음가짐으로 먼저 준비한 다음, 그 미사 안에서 죽은 이를 위한 은혜를 청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대자 요셉에게 용서를 빌며

올해 사순 때의 일입니다. 예비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께서 조용히 저를 찾았습니다. “베드로씨! 젊은 형제 가정이 지금 예비자 교리를 열심히 받고 있으니, 형제님 부부께서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약간 머뭇거리다 “네.”하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준비 없이 멧모르고 대자를 맞이했던 오래전 기억 때문입니다.

요셉은 20여 년 전 저의 대자였습니다. 아는 형제로부터 특별히 요셉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같은 본당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기에 하는 수없이 대자로 맞았고, 몇 년 동안은 서로 연락하며 성의를 다해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방에 일이 많아 주말마다 내려가는 바람에 만남이 뜸해졌고, 급기야 서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요셉이 냉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더 신경을 썼다면 요셉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죄지은 마음 때문에 한동안 선뜻 대자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또 그런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성당에서 기도하며 못난 제 모습을 돌아보다가, 문득 아버님의 친구분이기도 한 대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영세 대부이자, 견진 대부이신 마르코 대부님은 제가 지금의 본당으로 이사를 왔을 때, 성당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레지오 마리에 남성쁘레시디움 단장님 연락처를 알아내시고는, 그분을 통해 제가 레지오 활동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부님의 그런 세심한 정성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집사님과 함께 대부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인사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대부님과 만남을 떠올리면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난 부활 세례식 때 대자인 바오로 형제에게 촛불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함께 늦은 점심을 하면서, 대자로부터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진솔하게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바오로 형제 부부에게 복음정신으로 성가정을 행복하게 꾸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고, 늘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 대자를 맞게 된 일을 하느님께 보속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우리 부부에게 하느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를 대자 요셉을 위해 용서를 빌며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김병각 베드로 / 전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